

제 43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9.12)
일본의 새로운 내셔널리즘과 한일관계(키무라 칸)

내셔널리즘을 보는 시점

- 이데올로기로서의 내셔널리즘: 네이션(nation)에 가치를 찾아내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 (인식의 관점)
- 내셔널리즘과 아이덴티티(identity)
e.g.)영국-대영제국, 독일-낭만주의, 러시아-제국(역사발전), 미국-New World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아이덴티티를 결정
- 일본은 한국이 가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정도가 틀렸다. 예)중국에 대한 인식, 미국, 러시아에 대한 인식. 즉, 대국을 자신의 라이벌로 여김.

일본 내셔널리즘의 변화

- 왜 일본이 위대한 민족인가?
-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라이벌 국가는 서양국가.
- 전쟁에 계속 이기면서 군사적으로 특별한 신의나라라는 의식을 가지게 됨.
- 일본 민족주의는 제 2차 대전 이후에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면서 민족주의 존재:일본형 경영, 무라사회론

일본 사회의 변화: 1980년대

- 일본사회는 한국과 달리 유동적이지 않은 특성-자유민주당 후원회 조직, 종신고용제
- 정치적 유동화와 포퓰리즘(populism)의 대두 (e.g. 고이즈미, 아베)
아이덴티티가 불안했음.
- 오늘의 일본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은 1945년 전에 있었던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발전한 것으로 경제적 침체와 전후 체제에 대한 불신 확대. ⇒아이덴티티가 불안했음, 새로운 내셔널리즘 생김
- 과거의 망각: 역사에 대해 이상적이고 가볍게 여김.
c.f)토쿄서적(고등학교 일본사)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없었음. 아시아 나라와의 관계보다는 서양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김. 식민지를 기술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으나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
서양나라 교과서에는 종교에 대한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일본에서도 신사에 대한 기술을 많이 기입함. 그러나 요즘에는 야스쿠니 신사(명치 이후)에 대한 기술은 있긴 있지만 신사 자체에 대한 기술은 없음. 그만큼 80년대에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한마디로 무관심으로 표현됨.
- 90년대 국가에 대한 자신이 없어진 이후 내향적인 내셔널리즘.

중국이나 한국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지지. 다른 나라의 간섭에 대한 강한 거부감.

내셔널리즘과 한일관계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 서로에 대한 존재감 감소. (경제적, 사회적)

-냉전시기에는 협력할 수 밖에 없었지만 냉전 종결 후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일관계도 변화.

-세계화란, 세계의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웃나라의 존재감이 상대화됨. (전쟁)

-지일파/친일파/의 현저한 감소

중국에 대한 라이벌관계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나 협력관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예전에는 말할 수 없던 것에 이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세계화가 90년대 진행되면서 경제나 정책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면서 지역에 대한 구분에 없어짐. 정치가들의 지역적인 지지기반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인기에 의지하는 현상이 나타남.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서는 그것만으로 불충분함으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민족주의의 타겟으로 삼기 쉽다. 상대국강의 중요성 점점 감소하는데 비해 역사문제 그대로 존재. 역사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옴.

-존재감은 감소하고 반감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

예전에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교차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중국, 한국, 북한을 하나로 묶어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남.

-한일관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질의응답)

Q: 세계화와 지역화 한일관계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대중들이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게 일본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A: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중요성. 일본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완전히 다르다. 한국사람의 기대감일 뿐이다.

Q: 내셔널리즘이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에도 연결할 수 있는가?

A: 일본은 굉장히 내향적인 내셔널리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일본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은 경제상태의 호전과 함께 내셔널리즘이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지일파, 지한파를 따질 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문제이다.